

## 미일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북일대화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기시다-김정은 북일정상회담이 개최될까? 최근 일본과 북한의 북일대화 관련 발언들이 이어지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록 지난 3월, 북한의 완강한 거부로 북일대화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지만, 4월 기시다 총리의 방미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북일대화 지지와 5월에도 또다시 이어진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볼 때, 북일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북일정상회담이 실현된다면, 북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북일정상회담은 실현될 것인가? 북한문제의 핵심으로 일본이 주목하는 납치문제는 무엇이고, 일본은 왜 이 문제에 주목하는가?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북일관계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북일관계 변화를 기대하는 일본의 속내와 향후 북일관계를 전망해 보도록 한다.

### I. 1년 전부터 이어진 북일대화 가능성

북일관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약 1년전 부터였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고,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수년간 악화일로에 빠져 있던 한일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5월,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귀국 촉구 국민 대집회에서 “김정은과 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협의를 원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틀 후, 북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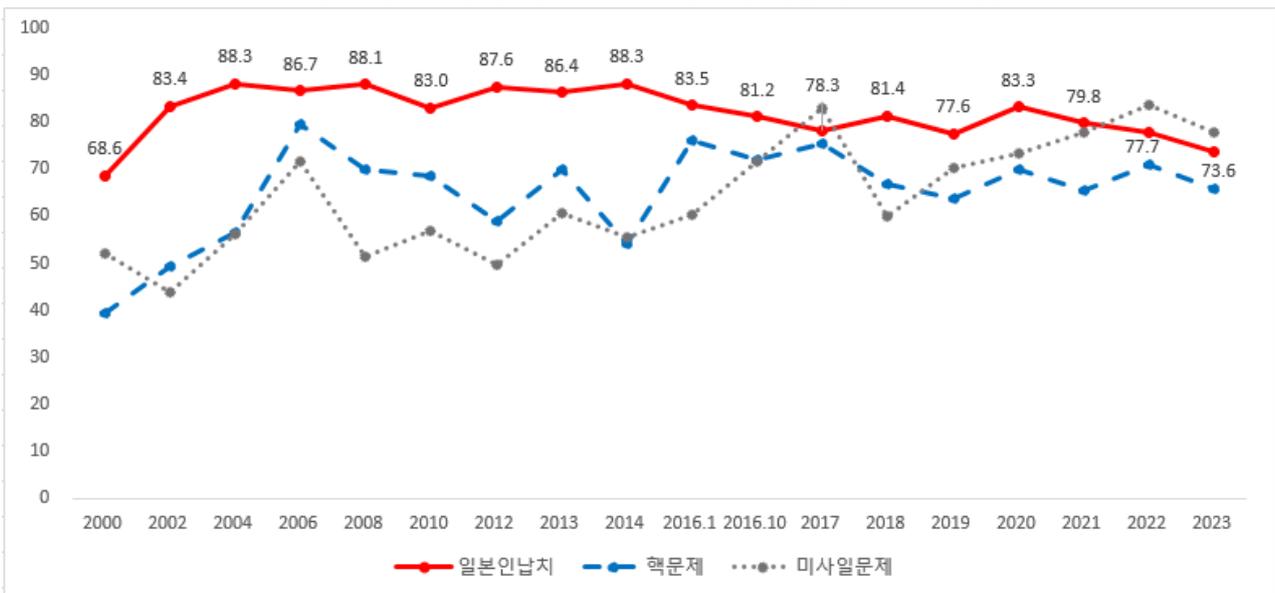
“일본과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화답했다. 이어서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이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 문제가 부각되며 양국의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지만, 실제로 3월과 5월 동남아 등지 등 제3국에서 양국간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한편, 북일대화의 가능성이 다시 주목받은 것은 올해 1월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위로전문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이후 기시다 총리도 일본과 북한 양측의 정상회담, 총리 직속 고위급 회담 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북일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러한 흐름이 수개월 지속 되었으나, 결국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일본과 납치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는 북한 사이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양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I. 일본에게 있어 북한문제, 그리고 납치문제

일본 내각부에서 매년 실시되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관심사항은 일본인 납치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아래 [그림] 참조).

[그림]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사항 (2000-2023)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중, 일부 발췌하여 필자 작성

---

그렇다면,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납치문제는 무엇인가? 니가타현에서 실종된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로 대표되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의 시작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1980년대 초 다수의 일본인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다수가 북한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1991년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되었으나, 북한이 전면 부인하며 더 이상의 진전은 이루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치문제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급속히 악화되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관심의 증대는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이라는 과제를 북일관계 전면에 등장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2년 북일평양선언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납치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과, 생존자 귀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다수가 사망하였고, 북한이 보내온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가짜라는 것이 밝혀지며 일본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후에도 납치문제에 대한 협의는 있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강화, 북한의 조사 보류 등으로 납치문제 해결 노력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리고 한동안 전국민적 관심 속에서 추진되었던 납치문제의 해결은 큰 성과없이 현재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납치문제는 일본내 정치사회적 이슈로 확대·재생산되며, 북일관계의 주요 사안이자 선결과제로 인식되었고,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준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일본에게 있어 북일관계의 모든 문제보다 납치문제가 우선시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의 입구이자 출구이며, 북핵문제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었다. 즉, 일본에게 북한문제는 곧 납치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성과없이는 북한과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외교적 관점에서 볼 때, 납치문제는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과 양자사안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며, 과거사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로 설 수 있는 이유를 마련해 주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 III. 앞으로의 북일관계, 그리고 한국

북일관계는 낮은 지지율 속에서 정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에게 지지율을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을만큼 파급력이 큰 이슈이지만, 동시에 그만큼의 성과가 필요한 부담스러운 이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총리가 북한문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지속적인 관심을

---

표명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외교 분야에서의 기시다 총리의 자신감과 현 상황의 절박함을 반영한다. 임기 내내 이어진 통일교 문제, 정치자금문제 등 각종 스캔들과 연이어 내놓은 경제정책, 사회보장정책 등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는데, 이를 반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외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의 외무대신을 역임한 바 이어 외교 분야에서만큼은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을 갖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4월 미일정상회담의 성과에서 알 수 있듯, 미일관계는 역대 최고라고 할만큼 글로벌 파트너로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수년간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한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궤도로 들어섰다. 한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일관계도 대화의 물꼬를 텃다. 남은 건 북한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2024년 9월로 자민당 총재선거 전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연임을 노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그보다 더 큰 이점은 없다. 여기에 납치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기간 동안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북일대화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동안 2022년 방일기간 납치피해자 가족을 만나는 등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하였으나, 북일대화를 공식 지지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끈질기게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해 온 일본외교의 성과이기도 하나, 향후 북일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납치문제를 바라보는 일본과 북한의 입장 차이로 이 문제에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매개삼아 북일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욱이 납치문제로 시작된 양자대화가 북미관계에서 일본에 역할을 부여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북일관계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한국의 셈법은 복잡하다. 북핵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한미일 관계이지만, 처해진 상황과 역할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북일간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북일 접촉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교체한다.

북일간의 입장 및 인식 차가 큰 만큼 납치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쉽지 않겠지만,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룰 경우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 의한 한국이 납치피해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수십년간 끈질기게 납치피해자 문제 해결을 고집해 온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성과에 대한 기대는 커녕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조차 시키지 못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일관계의 진전은 한국에서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

한편, 북일대화가 이루어질 경우, 납치문제와 더불어 북핵문제 또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비록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한 일본의 대외정책이 북한문제에 있어 미국과 다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다만, 납치문제를 매개로 북한과 마주하는 일본이 북미 사이에서 일정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설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에게도,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인 미국에게도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결과적으로 북한문제에 대응하는 한미일은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납치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북일간의 상황에 주목하며, 긴밀한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포괄적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대응의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

■ 저자: 최은미\_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23일  
“미일정상회담 이후의 북일관계: 북일대화의 가능성과 향후 전망”  
979-11-6617-759-0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